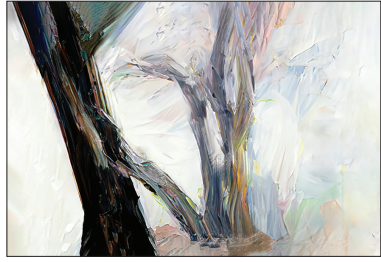


김준기 작가 90세 기념 사진유화 초대전

전주기린미술관서 내년 1월 2~15일 40여점 작품 전시

전주기린미술관(관장 이현욱)이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김준기 사진작가 작품 40여점을 초대하여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작가는 90세 출수 기념으로 개인전을 연다.



김준기 작가 작품 '겨울 낭만'

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림 같은 사진을 창작해 보고자 결심했다.

작가는 최근에 AI기능이 있는 adobe photoshop(Beta)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생성형 확장 AI로 사진을 회화의

영역에까지 변화의 폭을 넓혀 회화를 창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작품을 소장하기보다 발표함으로써 한국사진 회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전(寫中有畫 畫中有寫)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에 전시하는 사진작품들은 유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유화작품으로 전시하고자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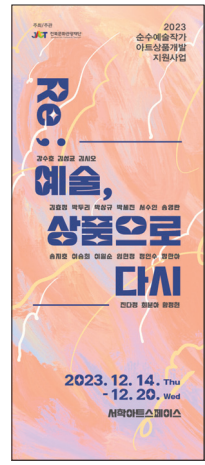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작품이라 많은 감상자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작가는 사진의 장르를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김준기 작가는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정년 퇴직하고 30여년동안 시집을 5권을 내기도 하고 회갑기념 사진전, 장년기념 사진전, 판도리의 상자를 열면 사진전, 회화적 담론 I 전, 회화적 담론 II 전 그리고 단체 사진전 40여회를 참여한 사진작가이다.

/김재훈 기자

'Re; 예술, 상품으로 다시' 기획전

전북문화관광재단, 순수예술 작가 아트상품개발 결과물 전시



Re; 예술, 상품으로 다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후 21일부터 한 달간 전북소광트레블라운지(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25 1층)에서는 아트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0일까지 서화아트스페이스(전주시 완산구 서화로 7) 2층 전시관에서 'Re; 예술, 상품으로 다시'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는 올해 순수예술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아트상품개발의 결과물 전시로, 18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Re;'라는 단어를 강조해 사용했다. '재창조'를 주제로 작가의 원화(原畫)를 넘어 디자인 상품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는 총 18명으로 지난 6월 재단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제16회 진안예술인의 밤 성황리 개최

(사)한국예총진안지회(회장 유중구)는 14일 전북문화전수관에서 150여명의 진안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진안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한국예총진안지회는 문학, 미술, 음악, 국악, 연예예술 5개 영역의 예술인 460여명이 활동하는 단체로 2004년 창립된 이후로 문화예술의 중심에 서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날 행사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예술상 및 공로상 시상, 협회별 어울림 화합한 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되는 진안예술상은 유재석(전 미술협회장) 씨, 예총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위한 예술 공로상에는 이동훈(전 한국예총진안지회 사무국장)씨가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중구 회장은 "한 해 동안 진안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신 모든 예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왕성한 예술 창작 활동으로 군민들과 향유 할 수 있는 생활예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 2회 발간 학술지 우수성 인정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소장 김건)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가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 학술지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등재 후보 학술지에 선정된 이후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에 따르면 이 학술지는 2018년 10월 30일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연 2회에 걸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최신 융·복합 연구 결과들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는 융·복합적 성격의 학술 주제를 다루는 종합 학술지로서 다양한 융·복합적 성찰과 구체적 적용을 추구한 학문적 성과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편집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 전국 규모의 확장성, 학술지의 구성 및 각종 규정의 명확성과 체계성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건 소장은 "그간 연구소와 관련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 덕분에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연구들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면서 등재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



한국연구재단 우수 학술지 선정을 비롯해, 국제화에도 힘써 세계적 학술데이터베이스인 스코푸스(SCOPUS) 등재를 목표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연말연시 박물관 재즈공연'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3시에 근대건축관에서 '연말연시 박물관 재즈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Heyday퀵텟 밴드의 감미로운 재즈공연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고품격 문화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Heyday퀵텟 밴드는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한 손성제(색소폰), 다양한 재즈 페스티벌에서 독창적인 연주로 큰 호응을 받은 차준호(드럼), 매년 새로운 장르의 피아노 앨범을 발표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전유나(피아노) 등 6인으로 구성된



실력과 재즈 밴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번 박물관 재즈공연은 연말연시를 맞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재즈곡으로 1시간 정도 선보이며 근대건축관에 입장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연말연시 박물관 재즈공연을 통해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관람객들의 마음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차별화 된 박물관을 선보이고 있으며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군산=김광민 기자

부안예술회관, 뮤지컬 디바 박해미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따뜻한 음악 선물이 있는 연말 힐링 콘서트 박해미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공연을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박해미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출연진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공연은 클라리넷 오케스트라와 함께 뮤지컬 배우 박해미, 포크싱어송라이터 박강수, 테너 박동일이 출연하며, 대중음악부터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티켓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예매티켓 수령은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연 중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함께하여 문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고품격 음악회인 만큼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부안예술회관을 찾아 이번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